

## '말씀 앞에 거꾸러진 사람'

말씀읽기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늘 '아직은 잘 못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일쑤이다. 그러나 '구재영 순장'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 성경 66권을 컴퓨터에 입력하다

서초공동체 드림3순 구재영 순장. 구 순장을 일대일 양육했던 이우곤 장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말씀 앞에 거꾸러진 사람'이다.

'순 온누리표'인 그는 '95년부터 아내의 손에 이끌려 온누리에 나오고 순예배를 드렸다. 등록을 하던 '98년 3월까지는 교회도 순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다고 한다.

"제가 얼마나 망나니였는데요. 순예배 때 삐딱한 소리만 해서 순식구들이 난처해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며 구 순장은 겸연쩍게 웃는다.

그런 그가 말씀앞에 진지해 진 것은 드림3순을 섬기기 시작한 '99년 2월 예비순장으로 섬기면서부터이다. 갑자기 예비순장이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다. 성경지식이라야 주일 학교 때 배운 것이 전부요, 그것도 비판과 판단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때 구 순장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겠나?'

( 구재영 순장의 '나만의 성경'. 그는 성경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 성경연구를 하며, 주석과 관련구절들을 함께 편집해 책으로 엮었다. 순예배 교재이자 소식지인 '드림'(왼쪽)는 지난해 가을부터 발행해오고 있다. )

말씀을 읽기로 했다. "두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우곤 장로에게 일대일양육을 받기 시작하면 서부터는 말씀을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다. 매일 4~8시간을 말씀을 읽으며 컴퓨터에 입력했다. 성경 66권을 모두 15장의 디스켓에 담아내는데 꼭 1년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3, 4분만이라도 짬이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점점 말씀이 재미가 있어졌다.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포기'를 배웠다. 그가 세례 받던 날인 '98년 9월 4일. 그의 돈을 떼고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다. 그때 구 순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는 '맛'을 조금씩 알아나가던 터였다. 구 순장은 그 돈이 이미 자신의 손에서 떠난 돈이요, 그 사람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 나만의 성경 만들기

“전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하나님께 사업도 맡겼어요. 말씀 볼 때 만큼만은 좀 봐주세요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10년, 20년씩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후 「생명의 삶」의 순 성경공부를 준비하며 만들었던 자료를 순예배 주보로 나누어주었다. 매달 두란노에 전화를 해 2, 3달 후의 「생명의 삶」 본문을 알아 놓았다. 그리고 본문에 관련 구절을 찾아 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1년만에 성경 전권을 '그만의 성경'으로 새로 만들었다.

그의 노력 덕택에 드림3순의 순모임에는 늘 알록 달록한 순주보와 함께 한 권의 두툽한 교제가 덧붙여진다. 드림3순이 말씀 중심의 순이 되도록 애쓰는 구 순장. 얘기를 끝내며 “말씀을 읽으며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스미는게 느껴져요.”라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도 잊지 않았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 신문